

보도	2026.6.17.(수) 10:00	배포	2026.6.17.(수)		
담당부서	자본시장감독국	책임자	부국장	장재훈	(02-3145-7570)
	자본시장총괄팀	담당자	수석	이광연	(02-3145-7571)

자본시장 변동성 확대 관련 긴급 시장전문가 간담회 개최

I 간담회 개요

- '26.6.17.(수) 금융감독원은 황선오 부원장(자본시장·회계) 주재로 긴급 시장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,
 - 최근 국내 자본시장의 변동성 확대 상황을 점검하고, 주요 리스크 요인 및 향후 전망 등을 논의

자본시장 변동성 확대 관련 긴급 시장전문가 간담회 개요

- ☑ **(일 시)** 2026. 6. 17.(수) 10:00 ~ 11:00
- ☑ **(장 소)** 금융감독원 회의실
- ☑ **(참석자)** [금감원] 황선오 자본시장·회계 부원장, 자본시장감독국장, 자산운용감독국장
[전문가] 해외 IB 시장전문가(2명), 국내 증권사·운용사 시장전문가(3명), 자본시장연구원(1명)

II 주요 논의내용

-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**자본시장 전문가들**은
 - 연초 이후 국내 증시가 단기간에 빠른 상승세를 보인 이후 최근 급등락 장세가 빈번히 반복되는 상황에 주목하면서,
 - 신용공여 잔액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변동성 확대 국면이 지속될 경우 담보유지비율 미달에 따른 반대 매매 등 개인투자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

- 또한, 소수 종목에 대한 편중 투자와 레버리지 결합 투자는 시장이 흔들릴 때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고, 오히려 개인의 투자 피해를 극대화하는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경고
 - 특히, 지난 5.27. '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'이 도입된 이후 개인투자자의 투기적 매매 성향으로 인해 시장 변동성이 높게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
- 향후 환율 및 금리 변동성의 확대는 국내 자본시장에 진입한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,
 - 이에 따른 자금 유출입 변동성이 증시 수급 불균형으로 전이될 수 있으므로 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
- 다만, 최근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주식 매도 확대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, 이는 단기 급등에 따른 일시적 차익 실현 과정으로 보이며,
 - 국내 경제의 위상 강화에 기반한 패시브 펀드 등 장기 자금은 지속 유입되고 있으므로, 이를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이탈로 해석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

□ 금융감독원 황선오 부원장은

- 전문가의 시장 상황 진단에 공감하며, 최근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국·내외 리스크 요인에 대한 상시 점검 체계를 한층 강화할 방침임을 밝힘
- 한편, 투자자들에게는 일시적 동요에 과도하게 반응하여 고위험 상품에 의존하거나, 무리한 차입 투자를 감행하는 행태는 지양하고,
 - 국내 경제의 펀더멘털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본인이 감내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 범위 내에서 장기·분산투자를 당부
- 아울러 증권업계에도 개인투자자가 내재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고,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설명의무 충실 이행 및 대고객 안내 강화를 요청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<http://www.fss.or.kr>)